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학습의 의미 탐색: 학습자 중심교육의 실천을 위한 기초연구

김병선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Exploring the Meaning of English Learning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 Basic Research for Practice of Student-centered Education

Byungsun Kim

VERUM colleg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학습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실천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 위치한 C대학에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하는 신입생 8명을 선정하고, 체험의 본질을 밝히는 데 적합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가지고 비대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수집하였고, 현상학에 근거한 자료분석을 통해 6개의 주제와 3개의 주제군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더 큰 무대의 안내자로 영어학습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영어학습의 의미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움을 폭을 넓혀주고 알고 싶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다. 셋째, 장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유용함을 영어학습의 의미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취업과 취업 후 직무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의사소통 도구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English learning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ractice so that English learner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ir classes. For this purpose, eight freshmen taking English classes at University C located in Gangwon-do were selected.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suitable for revealing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 was us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n-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that used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s. Six statements of theme and three theme clusters were derived aft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recognize the meaning of English learning as guides on a larger stage: the world. In particular, English learning is believed to be a tool for living as a global citizen and being good Samaritans. Second, the participants recognize the meaning of English learning as a chance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English learning is hence seen as a tool that can broaden the scope of learning and get the information one wants. Third, the participants think English learning is a tool for realizing their future dreams. In this connection, English learning is necessary for them to get a good job and communicate in the workplace after landing a job. Finally, discussion and sugges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Keywords : College English, Meaning of English Learning, EFL Learner, Practice of Student-centered Education, Phenomenological Research

*Corresponding Author : Byungsun Kim(Catholic Kwandong Univ.)

email: bstesol@cku.ac.kr

Received January 10, 2022

Accepted March 4, 2022

Revised February 3, 2022

Published March 31, 2022

1. 서론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교육인 영어 수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 진학해서도 대학마다 정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년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졸업 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공교육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학에서의 영어 교과목은 학습의 주체자인 학습자들의 자유의지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 결과 선택이 아닌 강요[1]가 다수의 학습자들로 하여금 영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의미 있는 교육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 저하로 탈동기화 현상[2]으로까지 이어져[2]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10여 년 이상 영어 학습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능력의 터딘 향상[3]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영어 교실은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입시 위주의 영어 수업은 학습자들의 교사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왔으며, 영어학습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의사소통임에도 불구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저성취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 흥미는 저하되고, 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교사가 정해주는 커리큘럼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현실 앞에서 자신이 인식하는 영어 학습의 의미는 무시된 채 수업에 앉아만 있는 학습자들에게 자율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최근 교육계 전반에 걸쳐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습자 중심교육으로의 전환 모색, 예컨대 플립러닝과 PBL에 주목하고 수업에서의 적극적인 적용의 시도들[4,5]은 고무적이다.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학습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존재가 아니며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구성하는 주체다. 추병완[6] 역시 의미 있는 학습은 교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개인이 의미를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때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서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어 대학생들이 영어 수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의미한 학습 성과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대학생들이 체험하고 인식하

는 영어 학습의 의미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한 영어학습의 의미에 대해 국내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먼저 김태영[7]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4가지로 구분지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세속적 욕망과 입신양명의 의지가 작용, 둘째, 미래의 막연한 필요를 대비하는 보험으로서의 의미 및 부모 세대의 부를 후대에 세습하기 위한 의미, 셋째, 키치(Kitsch)로서의 아류 문화가 반영된 현상, 넷째, 문화자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는 사회 현상적 접근을 통해 영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확장과 영어학습에 작용하는 한국인들의 고유한 심리적 구인, 그리고 그 연유를 고찰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로 김하정과 원효현[8]은 한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영어학습을 사회적, 심리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 이전에 경험한 영어학습과 그 경험의 구조와 본질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대학생들의 처음 영어는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하게 하였으며, 자신을 괴롭히는 과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대학생들은 영어 학습을 성적으로 평가 받는 교육 현실에서 영어에 대한 인식을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암기과목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강제적인 속박 속에서 영어학습을 해 온 관계로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영어가 되었다는 인식이었다. 셋째, 영어 학습은 가깝게는 대학 진학과 멀게는 취업을 위한 것으로 내재적 동기 없이 의무적으로 공부해야만 했던, 그래서 악연이자 골칫거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이 왜 여전히 담보상태인가를 진단해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영어학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영어학습이 가지는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영어학습을 해야 하는 의미를 학습자 관점에서 발견함으로써, 학습자 중심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육 현장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 절차 및 연구 방법

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의 교양 영어 수업에 수강하

기에 앞서 그들이 인식하는 영어학습에 대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효율적인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개인의 체험(lived experience)의 본질적인 의미 구조를 규명하는 질적 연구 방법[9]이다. 특히 질적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함으로써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라 하겠다. 현상학이 인간의 경험 속에 있는 본질 즉, 환원된 순수 현상[8]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주관적 경험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해석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학습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 데 적합하다 할 것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강원도에 위치한 C 대학에 2021년 2학기에 개설된 교양 영어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 신입생들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대면 상황에서 연구자가 4개 반 총 120명의 학습자들에게 SNS를 통해 영어 학습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였고, 관련하여 열린 마음으로 성실하고 의미 있게 답한 대상자를 확보해 13명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개별 연락을 취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8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들의 전공은 간호학 2명, 치위생학 2명, 임상병리학 2명, 미디어 콘텐츠학 1명, 건축학 1명이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3명, 여학생 5명이며, 나이는 20세에서 23세이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상자들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대신하였고, 연구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하였다. 또한 연구 중에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3 연구 절차 및 자료수집

연구는 2021년 2학기 3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대학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학습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일별로 각 2명씩 개별적으로 비대면으로 접촉하였다. 이는 전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학이 정책적으로 교양 교과목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연구참여자와의 대면 인터뷰를 시도하지 못한 이유이다.

자료수집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서비스로 급부

상한 줌(zoom)을 통해 개인별로 약 40분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하루에 2명씩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인터뷰에 앞서 모든 내용은 녹취된다는 사실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인지시켰다. 4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인터뷰로 설정한 이유는 연구참여자들의 집중력을 위한 배려였고, 인터뷰에서 미흡한 정보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SNS와 전화 통화를 통해 보강하였다. 또 심층 면접을 위해 정해 놓은 최소한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을 선택해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최대한 끌어내려 노력하였다. 사전에 준비한 최소한의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당신에게 있어서 영어학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 2) 당신의 미래에 영어학습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나요?
- 3) 당신의 언어로 영어학습을 한 단어 혹은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연구참여자 모두와 SNS인 카카오톡 친구를 맺고, 관련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구자와의 개별방과 단체방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것은 심층 면접에서 얻은 진술 중 해석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보강하려는 의도이며 동시에 소통의 질적 확보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풍부하게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다중이 참여하는 단체방에서는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 뒤로 숨는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에, 가급적 심도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였다. 다음 Fig. 1은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SNS상에서 자신들이 인식하는 영어학습의 의미를 작성한 내용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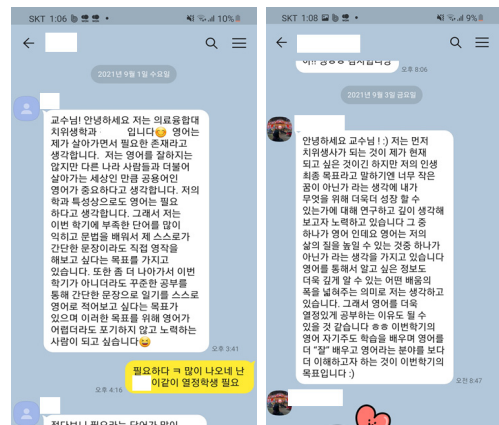


Fig. 1. participants' meanings of English learning

2.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인터뷰 내용은 모두 연구자가 직접 컴퓨터에 전자하였고, 질적연구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7을 이용해 인터뷰 내용에 대한 코딩과 개념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정상원과 김영천의 연구[1]를 참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 진술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기 2) 성찰하기 3) 의미있는 구절 찾기 4) 의미 단위로 묶기 5) 개념 추출하기 6) 문장화하기를 순환적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현상학적 연구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연구자가 자료 분석을 하면서 고려한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어떻게 주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찾고, 의미있는 진술을 나열하며 반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진술을 목록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어나 경험의 조직적 기술을 하면서 연구자의 기술을 반영하고 상상적 변형을 사용해 가능한 한 모든 의미와 다양한 관점들을 찾아 그 의미를 주제별로 묶어 현상에 대한 증거 틀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미 단위를 배제하고 학문적인 언어로 바꿔 기술하려는 데 역점을 두어 현상학적인 접근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현상학적 연구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연구자가 자료 분석을 하면서 고려한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어떻게 주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찾고, 의미있는 진술을 나열하며 반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진술을 목록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어나 경험의 조직적 기술을 하면서 연구자의 기술을 반영하고 상상적 변형을 사용해 가능한 한 모든 의미와 다양한 관점들을 찾아 그 의미를 주제별로 묶어 현상에 대한 증거 틀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미 단위를 배제하고 학문적인 언어로 바꿔 기술하려는 데 역점을 두어 현상학적인 접근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의 질적 확보 차원에서 최근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가 활발한 동료 교수 2인을 참여시켜 검토작업을 거쳤다.

3.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드러난 대학생들이 체험하고 ‘지금 현재’ 인식하는 영어학습의 의미에 대한 본질이 6개의 주제와 3개의 주제군으로 Table 1과 같이 도출되었다.

Table 1. research findings

statements of theme	theme clusters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	세계시민의식 역량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도구	
배움의 폭을 넓혀주는 도구	학습 기회 제공
알고 싶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구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도구	미래의 준비
직무에 필요한 의사소통 도구	

3.1 세계시민의식 역량: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도구

연구참여자들은 영어를 세계의 공용어라는 인식 아래 이제 국내에만 국한되어 활동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갈 준비 즉 세계시민의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통 도구로서 영어학습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유튜브 혹은 크리에이터 활동과 비영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세계인과의 온·오프로 채널 공유를 함으로써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방편으로 영어학습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다음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은 이를 잘 드러내준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의존하고 편만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영어는 저에게 세계화가 진행 중인 현재 거기에 맞는 인물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A)

“제가 되고 싶은 것은 크리에이터인데 세계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로써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E)

“영어는 저를 세계라는 더 큰 무대로 데려가 줄 수 있는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배움으로써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떠 좋은 기회를 얻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참여자 B)

3.2 학습 기회 제공: 배움의 폭을 넓혀주는 도구; 알고 싶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구

연구참여자들은 영어학습의 의미를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영어로 된 전공 서적이 있음에도 제대로 이해하며 읽을 수 없어서 배움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교수자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알아나가고 싶다는 바램에서 영어학습의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는 국어로 쓰여 있는 매체만큼 영어로 쓰여진 매체가 많은데 자유자재로 읽을 수 없어 회피하게 되고 결국 정보의 제한성을 가진다는 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대학생들에게 영어학습의 의미는 배

움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도구라는 인식인 것이다. 다음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영어는 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닌 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통해서 알고 싶은 정보도 더욱 깊게 알 수 있는 어떤 배움의 폭을 넓혀 주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더욱 열정있게 공부하는 이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C)

“아무래도 전공이 치위생이다보니 영어로 된 용어나 원서를 보게 되는데 읽어보고 싶는데 잘 도전이 안되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에만 의존하니 아쉽더라고요. 영어학습의 의미는 전공을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D)

“유튜브에 제가 흥미 있어 하는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 영어로 말하니 안 들려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 아쉬웠어요. 그럴 때 영어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를 느껴요.” (연구참여자 H)

3.3 미래의 준비: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도구; 직무에 필요한 의사소통 도구

연구참여자들은 비록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생이지만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현실적인 문제, 즉 취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어학습의 의미도 미래의 준비, 즉 성공적인 취업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향후 일하게 될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중 하나가 영어라는 이해이고,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준비로 혹은 관련 자격증 취득에 영어 점수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은 직무에 필요한 의사소통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외국계 회사나 직무와 관련해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저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목표입니다. 영어를 시험으로 봐야 통과할 수 있기에 열심히 해야 할 교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직업을 위해 꼭 거쳐야 할 관문이라 제가 영어학습을 하는 의미입니다.” (연구참여자 F)

“저는 외국계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영어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영어를

하고 싶은데, 지난 학기에도 그랬지만 고등학교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독해와 문법 중심의 수업은 아쉽습니다. 저에게 영어학습 의미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참여자 H)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습자를 학습의 주체자로 바라보고 그들이 ‘지금 현재’ 인식하는 영어학습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이끌고 의미 있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다시 말해 학습자 중심교육의 실천을 위한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영어학습의 의미의 본질을 찾으려고 시도하였으며, 6개의 주제와 3개의 주제군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연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제안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국내라는 좁은 무대가 아니라 더 큰 무대에서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즉 세계시민의식 역량을 위해 영어학습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연구자를 포함한 교수자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대학생들은 영어학습의 의미를 성숙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즉 교수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학생들은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만이 아닌 세계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영어학습의 의미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소통, 봉사 등 공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포부는 김태영[7]이 주장한 세속적 욕망과 입신양명의 차원을 뛰어넘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교육과 세계시민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13]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또한 영어 교실이 단순히 시험을 위한 수준에서 머물러선 안 되며, 세계인과 무리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구어 영어 능력 증진이라는 시대적 필요에 부응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10]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교실에서 영어로 말하고 듣는 활동 중심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인 모두를 대상으로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는 세계영어(World Englishes) 능력을 갖

준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해 본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영어학습이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지식 습득의 변화된 양상 속에서 영어교육이 학습기회의 제공의 역할을 한다는 [1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 인터뷰에서 대학생들은 전공 서적을 자유 자재로 읽고 싶고, 인터넷과 연결된 세상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지만, 영어 능력이라는 장벽이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답답하게 한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영어로 구사되고 쓰여진 정보들에 대한 앓의 갈망의 표현이다. 특히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 불리는 대학생들에게 유튜브와 인터넷 매체는 접근이 용이하고 영향력도 상당하다. 하지만 유용한 자료들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어 능력의 한계로 국어로 된 세상만 맛보는 형국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단순히 교재에 있는 지식,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 예컨대, 영화, 뉴스, 잡지, 광고 등 영어로 된 매체들을 수업에서 다루고 폭넓게 지식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앓의 욕구를 채워주는 영어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럴 때 영어학습의 흥미는 증진될 것이고 학습성취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교실 밖에서도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영어 매체를 이용한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미래 준비를 위한 도구로 영어 학습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 물론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목적이 취업의 기회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15] 또한 당장 취업 준비의 여유가 있는 1, 2학년의 경우조차 선배나 교수 등 주변으로부터 영어스펙의 중요성에 대해 빈번하게 들으며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단순히 취업을 위한 토익 점수나 관련 자격 영어시험을 위한 도구로만 영어학습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학습의 의미를 취업에만 초점을 맞추어 간다면 대학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교양영어 수업의 목표가 영어 향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으며, 영어학습의 의미 또한 재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영어교육이 시험 준비를 위한 영어 지식 습득을 넘어서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교양인으로서 전인적인 인격 성장에 있음을, 즉 무게중심을 교양에 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은화[11]는 문헌고찰을 통해 자유 교양교육의 탄

탄한 기초가 전공교육이나 직업교육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교양의 비중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이는 대학 교양 영어 교육 현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어보다 교양에 더욱 의미를 둘 때, 영어학습은 좀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양인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영어학습은 4차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을 갖춘 성숙한 사회인,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인을 배출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비록 본 연구자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학습의 의미에 대한 현상의 본질을 기술한다고 몸부리쳤지만, 기술하는 순간 그 현상 자체는 사라져 버리고 오직 그것의 재현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고백[9]은, 현상 연구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에게 또한 도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교수주도의 강의식 수업을 편하게 생각하고, 학습자가 잘 보이지 않는 대학영어 교실에서 학습자 중심교육 실천의 필요성을 논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성과라 생각한다. 또한 학습자 입장에서 영어학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의 심연에 있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 끄집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수고였다고 자평해본다. 향후 대학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영어 교실이 영어학습의 목표가 언어 능력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영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오은주[10]가 제시한 세계시민성과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도록 실천되는 현장이 되기를 기대해보며 본 논의를 마친다.

References

- [1] J. H. Lee, H. J. Park, "College students' selection process of English learning: an analysis in perspective of subject mismatch and perceived budget constrai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3, No.2, pp.25-56, Jun. 2012.
- [2] M. A. Ha, "A study on grit and English learning motivation for college students with low English achievement",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Vol.46, No.1, pp.237-264, Feb. 2020. DOI: <https://doi.org/10.21559/aellk.2020.46.1.012>
- [3] H. S. Lee, "The analysis of low efficiency on English language teaching of Korea", *Korean Education Inquiry*, Vol.27, No.1, June 2009.
- [4] B. W. Chu, "The implications of constructivism in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Vol.3, No.1, pp.1-15, Feb. 2000.

- [5] S. K. Kim, "The effect of the flipped learning and PBL on participation in clas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personality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31, No.3, pp.703-716. June 2019.
- [6] Y. K. Cho, "The case study on development of Korean writing teaching-learning design model by using PBL-flipped learn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1, pp.1141-1160. Nov. 2020.
- [7] T. Y. Kim, "The sociocultural meaning of English learning and its implication to English education: four sociological approache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Vol.41, No.3, pp.106-134, Sep. 2015. DOI: <https://doi.org/10.21559/aellk.2015.41.3.006>
- [8] S. W. Jung, Y. C. Kim, "An inquiry on writing techniques for phenomenological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0, No.3, pp.5-42, Sep. 2014.
- [9] H. Y. Jang, E. O. Song,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published in nursing journals in a recent 10-year period: focused on JKAN and ANR",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20, No.2, pp.100-112. Nov. 2019.
- [10] E. J. Oh, "Modeling a general English course integrating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5, No.4, pp.163-186, Aug. 2021.
- [11] Y. S. Shim, "Korean EFL teachers' perceptions of world Englishe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Vol.31, No.1, pp.149-172, Mar. 2015.
- [12] E. W. Lee, "Analysis on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in Korean universiti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8, No.2, pp.91-118, Jun. 2007. DOI: <https://doi.org/10.15753/aje.2007.8.2.004>
- [13] M. R. Joo,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English and global citizenship",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Vol.27, No.3, pp.129-147, Sep. 2021.
- [14] H. Y. Kim, "The futur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English education in the post-COVID-19 era", English Teaching, Vol.76, pp.87-105, Sep. 2021. DOI: <https://doi.org/10.15858/engtea.76.s1.202109.87>
- [15] H. Y. Jo, "A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beliefs on the importance of English ability in the process of care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5, No.4, pp.29-56, Dec. 2015.

김 병 선(Byungsun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목원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사)
- 2001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영어학석사)
- 2012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영어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영어말하기, 영어교수방법, 학습자중심, 자기주도학습